

산촌의 가을 하늘



이정규
캘거리 교민
교육학자/시인

어제 밤
가을 비 촉촉이 내리고
오늘 새벽
첫 서리 내린 탓일까
앞동산 숲
아리따운 단풍으로
신비롭게 채색되고
가을 색 차려 입은 나뭇잎
황금 햇살 받아
주님 영광 비추는구나

눈부시도록
찬란한 가을 햇살
포근히 가린
산그늘
일상의 그늘진 곳
모두 감싸 안고
갓가지 색칠한 세상사
평온히 덮어주는구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하게
손에 잡힐 듯
바로 가까이 펼쳐지고
온 누리
빛
그늘
모두 담아
주님의 따뜻한 마음
무한한 사랑 드러내는구나

-가톨릭신문(2018년 12월9일자); 저자의 시집 <자연과 영성의 노래> "산촌의 가을 하늘" 중에서 전문 인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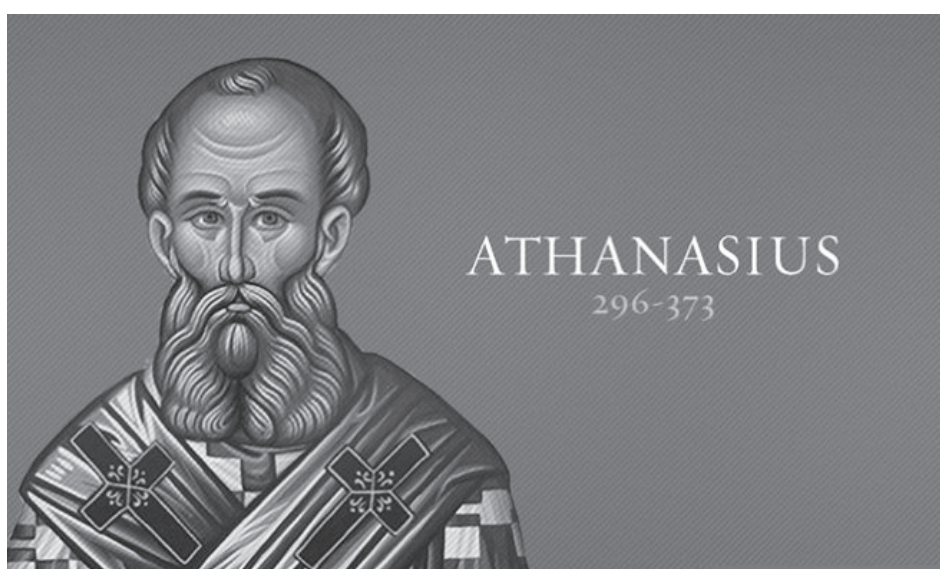
<종교컬럼>

이진종 목사
브릿지 선교회



아리우스의 예수의 신성, 성육신 부인 관련

<삼위일체 논쟁>



아타나시우스는 4세기에 활동했던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였다. 그는 로마 가톨릭교회, 동방정교회, 성공회로부터 성인으로 존경을 받고 있으며 개신교로부터도 위대한 교회의 신학자요 지도자로 불린다. 325년 기독교 최초의 세계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부와 성자의 동일한 본질을 말한 그의 주장을 인정하여 정통 기독교 신앙의 아버지로 불린다. 사프는 "콘스탄틴이 정치계와 속계에 있어서 니케아 시대를 이룩한 중심인물이었다면 아타나시우스는 신학계와 교계에 있어 중심인물이었다"라고 말했다.

아타나시우스는 교리상으로 혼란한 시기에 가장 유명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그리스도 삼위일체 정통 신앙의 기초를 놓고 이단으로부터 평생 기독교 신앙을 수호한 교부요 신학자였다. 그는 평생 다섯 번의 추방과 유배지 생활을 하였다. 거의 20여 년간 핍박을 받고 혹독하게 살았으면서도 그는 이론적으로 삼위일체 정통신앙을 견지했을 뿐이지 폭력적으로 대항하지는 않았다. 갑파도기아 교부인 그레고리 나지 안나지안 주스는 "아타나시우스를 교회의 참기둥으로 그의 신앙인격을 칭찬했다". 많은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를 지지했는데 특히 그의 적들마저도 그의 경건한 삶과 사치하지 않음을 알고 두려워했다고 한다.

당시 로마 황제가 바뀔 때마다 교리도 오락가락 바뀌었다. 교회는 심각하게 분열

된 상태였다. 아타나시우스를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본질(동일한 하나님)"로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아리우스(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기독교 신학자 성직자)를 중심으로 성부와 성부의 유사 본질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낮은 피조물로 인정하였다. 즉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성육신(Incarnation)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완전한 존재로 본다는 시각이었다. 아타나시우스는 "만약 예수가 불완전하고 인간이라면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를 반박했다.

그는 20세에 처음으로 니케아 공의회에 집사로 참석했으며 30세에 알렉산드리아 주교의 뒤를 이어 젊은 나이에 감독이 되었다. 이후 아리우스파 이단에 대항하여 일생을 보낸다. 우여곡절 끝에 325년 콘스탄틴 1세가 주재한 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규정하였지만, 당시 규정한 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규정하였지만 당시 아리우스파가 더 큰 세력과 지지를 얻고 있었다. 아타나시우스는 로마 황제가 바뀌 때마다 울고 웃는 일이 반복되었다. 381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주재한 2차 세계종교 회의(세계종교회의) 즉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타나시우스의 성부 성자의 동일 본질을 지지하고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한다. 니케아 신조를 공포하고 이는 나중에 사도신경으로 발전한다. 이후 갑파도기아 세 교부가 아타나시우스가 기초한 삼

위일체 교리를 확립하여 신학적인 공헌을 이룬다. 최초 트리탄에의해 제기된 삼위일체 이론은 어거스틴(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그의 저서 <삼위일체론>에서 기독교 정통교리로 지지, 확립하게 되었다.

아리우스 파만 성부성자의 유사본질(호모이오우시우스)를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초기 영지주의에서 말시온 등은 가현설을 주장하여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육신을 부정하였다. 이후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한 이슬람 역시 예수를 하나님이 아닌 선지자로 하나의 인간으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한 것 역시 아리우스파의 영향인 듯 보인다. 이어 단일신론, 양태론, 삼신론 등으로 왜곡된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과 이단자들이 계속 나타난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이들에 대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론(트리니티)과 성육신(인 카네이션인카네이션)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변호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를 부정한다면 이단으로 규정해도 좋다.

교부 아타나시우스의 공헌은 두 가지다. 첫째, 예수의 신성과 인성(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이다)을 둘 다 강조하여 니케아 신조로 채택되고 나중에 삼위일체 교리의 확립을 가져오는 기초를 놓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신약 27권의 성경 목록을 최초로 언급한 것이었다.

Calligraphy by pig
Designed by pig
http://blog.nate.com/instan011